명상지도자협 "명상지도자 양성 박차"

명상아카데미 1·2급 4월 16일 개강
5월 18일, 창립 10주년 기념 포럼도
적경 스님 "정신 건강 향상 최선"
진우 스님 예방서 "선명상 대중화"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간담회에 앞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명상지도자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온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명상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올해 새 이사장으로 취임한 적경 스님을 중심으로 명상아카데미, 기념 포럼 등을 열어 불교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적경 스님, 협회)는 3월 11일 서울 나무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4월 16일부터 '명상아카데미 명상지도자 2급·1급 자격과정 강의'를 실시한다. '지혜와 평화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강의는 총 11강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아카데미를 통해 현재까지 명상전문지도사 약 2200명을 교육했고, 지도자 자격과정 2급 866명, 1급 426명, 트레이너 178명, 디렉터 34명을 배출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최일선에서 불교명상을 개발·보급하는 대표 명상지도자들이 강사진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적경 스님의 '가피명상'을 비롯해 △문사수명상연구원장 일중 스님의 '호흡통찰명상'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의 '아바타명상'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고담선원장 혜민 스님과 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정혜 스님이 새롭게 강사로 참여해 '바로 깨닫는 직지심법'과 '화엄선명상'을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5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는 '나와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는 명상의 지혜'를 주제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도 열린다.

협회는 명상프로그램 개발·운영은 물론 염불, 간화선, 위빠사나 등 다양한 명상법을 담은 통합 교재 발간도 연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2월 17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사장 적경 스님(봉인사 주지)은 "2015년부터 협회를 이끌어오던 혜거 스님의 원적으로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 혜거 스님께서는 늘 '항상일로'와 '세계일화'를 강조하셨다"며 "자신의 성장과 세상 사람을 위해 공헌하라는 혜거 스님의 뜻을 이어 명상을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선명상'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종단은 제도적, 행정적 측면에서 도울테니, 협회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선명상을 제대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첫 불교명상지도사 2급 33명 배출

3월 12일, 1기 수료식 개최
20주간 명상 지도 능력 익혀

태고종이 불교명상을 통해 국민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전할 지도사 33명을 배출했다. 지난해 불교명상지도사 민간자격증발급과정을 등록·운영한 이후 거둔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태고종은 3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불교명상지도사 2급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33명의 지도사를 배출했다. 불교명상지도사 2급 교육은 지난해 6월 14일 시작돼 20주간 명상 기법을 배우고 실습하며 지도 능력을 익히는 과정으로 운영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수료생 대표 지성 스님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 모범 교육생으로 선정된 지성 스님, 능관 스님, 진원 스님, 수정 전법사에게는 표창장과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전국 종무원을 돌며 종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명상' 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아 교육 과정을 개설했는데,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 아쉬운 마음도 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정을 잘 이수한 여러분의 열의가 태고종의 밑거름이 되고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불교명상을 널리 알린다면, 종단도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료증과 표창장을 받은 지성 스님은 배움의 의미를 되새기며 수행의지를 다졌다. 지성 스님은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 익힌 지식을 잘 나누며, 명상을 접하는 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상진 스님은 모범 교육생으로 선정된 스님과 전법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불교 정신으로 자비 의술 펼치겠습니다"

이해원 동국대 의료원장
백용해 일산병원장 취임식



새로 취임한 이해원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백용해 일산불교병원장이 불교 정신을 기반한 자비 의술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 의료원은 3월 11일 일산불교병원 대강당에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일산불교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정영식 기획부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등과 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해원 동국대 의무부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 정신에 기반한 의료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해원 의무부총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치유와 자비의 정신을 전하고,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전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료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백용해 일산불교병원장은 입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의료를 펼칠 것을 밝혔다. 백용해 병원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입원 경로를 단순화하고 배후 진료가 가능한 입원 전담 병동을 설치하고 입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구축하겠다"며 "병원 구성원 모두가 병원 발전을 통해 동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 의료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속적 관심과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화계불교대학 입학식…"정법 배우리"

학장 청강 스님 등 강사진 포진
우봉 스님 "행복 위해 공부" 당부



"화계불교대학에 입학하는 저희 입학생 일동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굳게 지니고 부처님 정법을 배우고 익힘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제32기 화계불교대학, 제18기 대학원 및 제14기 경전반 입학식에 모인 입학생들이 부처님 제자로 오계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는 3월 8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불교대학 입학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주지 우봉 스님은 입학생들을 격려하며 수행과 정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개인과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를 담은 종교이자 철학, 학문"이라면서 "행복 성취를 위해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당부했다.

학장 청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삶과 지혜의 영양분이 될 수 있게 함은 물론 어려운 사회와 국가의 밝은 등불이 돼 주길 바란다"면서 실천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길 서원했다.

올해 화계사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화계불교대학 수업을 꾸렸다.

불교대학 학장 청강 스님은 기본반과 선명상, 여래장(2학년)을 가르친다. 포교국장 무념 스님은 수행·실천(1학년)을 강의한다. 사회국장 재각 스님은 불교개론(1학년), 금강경·교양과정(대학원)을, 무여 스님은 부처님의 생애(1학년)는 강의한다. 1학년 경전 입문은 일윤 스님이, 불교사상사는 진석 스님이, 지장경은 서안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고금 스님은 대학원에서 법화경을, 현주 스님은 경전반에서 법구경을, 혜장 스님은 경전반 화엄경과 1학년 불교문화를 강의한다.

임은호 기자

진흥원,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수여

3월 12일 증서 수여식
총 3억 6900만원 전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제10기 수상자를 선정하고 총 158건, 3억 69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진흥원은 3월 12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임원실에서 '제10기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제10기 청년불자상·동아리상은 지난 1월 공고를 낸 이후 접수된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등·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불교 동아리 지원자를 심사를 거쳐 불자상 54명, 동아리상 104곳을 최종 선정했다.

진흥원은 "이번 10기에는 학생과 동아리 지원자 수가 폭증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청년불교 활동에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원은 학교마다 다수의 동아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사)대한불교선재종 창종 10주년 기념 및 총무원장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무량겁을 두루 밝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사)대한불교선재종은 법등을 이어받아 수행과 교화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과 더불어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창종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대한불교선재종을 위해 원력과 공덕을 쌓아오신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께서 자리를 빛내주시어 더욱 원만구족한 법회가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날 지나온 1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원력과 정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시어 무량한 법열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69년(2025년) 3월 2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3층(총본산 광주 미륵사)
- 대상 : 선재종 스님 및 사암 종사자

(사)대한불교선재종 총무원장 혜법 합장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7주년 기념 제20회 추모 다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에서는 불향인 전남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 847주년을 맞아 제20회 다례재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화순문화원에서 봉행되는 다례재는 진각국사 혜심의 큰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화순군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4월 10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화순문화원
■ 주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 후원 : 화순군 Hwasun-gun 화순군의회 Hwasun-gun Council
■ 협찬 : 화순 문화원, 화순 초등학교 제37회 동문회, 화순읍 유천리 벽오동 보리밥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1길 16 혜심사 H·P 010-2971-4646